

전국 최고령 전북...안전 대책은 최하위

대피시설 없는 읍·면·동...146개 60% 달해

전쟁 등 비상상황 발생 때 전북도민 52만 여명은 대피할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전국 대피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241개 읍·면·동 가운데 60.6%에 달하는 146개 읍·면·동에 대피시설이 없다.

전체 읍·면·동 중 대피소가 없는 비율은 전남(69.7%), 충남(63.2%)에 이어 전북이 세 번째다.

또 대피소가 없거나 수용인원이 주민 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무려 70.1%에 달하는 169곳으로 전북도민의

28.2%인 52만4천여명은 전쟁 등 유사시 실제 대피할 곳조차 없다.

시군별로 보면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은 읍 지역 1곳에만 주민 대피 시설이 있었을 뿐 각각 13개, 10개, 11개, 10개 면(面)에는 대피소가 없었다.

이들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업무지침을 통해 대피 시설 산출기준을 '읍 또는 동' 이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황 의원 설명이다.

황 의원은 "전북도는 시·군별 대피소 수용 가능 현황 등을 점검해 한 명의 도민도 유사시 소외되지 않도록 대피시설을 조속히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62곳 중 25곳 화재 무방비

소화전 등 진압 장비 없어

전북 전통시장 40%는 진압 장비가 없어 대형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2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불이 나면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전통시장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따르면 전북 전통시장 62곳 중 25곳(40%)에는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등 화재진압 장비가 없다.

순창은 전통시장 3곳 모두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고, 고창과 김제, 장수 등도 화재진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황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안전분야 예산이 화재진압 장비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전북도가 투입한 전통시장 화재진압 장비 설치 예산은 1억2000여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도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전통시장을 하루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익산국토청, 아름다운 해상교량 사진 공모전

'노을 속 목포대교' 대상 수상

'노을 속 목포대교'가 아름다운 해상교량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 2회 아름다운 해상교량 사진 공모전'에서 '노을 속의 목포대교(사진)'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흥보 황용도, 주재부합성, 작품성, 참신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최우수상은 '고군산의 비상을 꿈꾸며', 우수상은 '아름다운 압해대교의 일몰'과 '유해 속의 아름다운 진도대교'가 각각 뽑혔다.

이번 '여행지에서 만난 우리의 아름다운 해상교량' 공모전에는 500여점이 출품돼 총 30점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익산국토청은 수상작은 우리나라 해상교량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활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병장수 비는 답성놀이 오세요" ... 고창 모양성제 25일 개막



지난해 열린 고창 모양성제 행사에서 아낙네들이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도는 '답성놀이'를 펼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조선 시대 병영문화 즐기기 등

다양한 체험·문화 행사 진행

아낙네들이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도는 '답성놀이'로 유명한 '고창 모양성제'가 오는 25일부터 닷새간 전북 고창읍성 일원에서 열린다.

고창 모양성제는 조선 단종 원년인 1453년에 당시 호남도민들이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창읍성(모양성)을 축성한 정선

을 계승하기 위한 축제로 올해로 44회째를 맞는다.

행사에서는 성곽을 돌면서 무병장수와 소원을 비는 답성놀이와 관광객·주민이 하나 되는 강강술래가 재현된다.

모양성 축성에 참가했던 당시 전남·북, 제주도 17개 고을의 깃발을 다는 '고을기 올림식'과 조선시대 원님 부임행차, 조선시대 복식을 갖춘 가장행렬단의 거리 행진도 펼쳐진다.

조선 시대 병영문화 즐기기, 군점 도는

아전식량 만들기, 추억의 옛놀이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가훈 써주기, 청소년 록 콘서트, 전통무예 시연 등의 문화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 고창읍성과 판소리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지 않으며 고인돌 유적지는 50% 할인해준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의 정경 자연과 다양한 문화유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나주시, 이음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민·관 협력강화 기대

나주시 지역 민관(民官) 협력사업의 교류활을 할 나주시 이음 공익활동지원센터(이음센터)가 지난 20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음센터는 주민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례 제정, 센터 설립 등 2년여 준비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음센터는 나주시 공익문화 구축을 비전으로 ▲ 자치와 참여지원 ▲ 신뢰·협동·존중기반 공동체지원 ▲ 공유와 연결을 통한 민관 협력 등 3가지 사업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지역 공익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을학교, 아이디어 콘퍼런스 등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한다.

빛가람동 옛제이 빌딩에 문을 연 이음센터는 80여명을 수용하는 대화의실, 소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췄으며 지역 공익활동 단체와 관련 기관·사회단체 등은 대관에 사용할 수 있다.

이음센터 관계자는 "공익활동가 양성 프로그램과 실무역량 강화교육 등을 비롯해 주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scn@

광양제철소 분진방지 기술 현장 적용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나서

광양제철소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분진 방지 기술을 현장에 적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철소에서는 쇳물의 원료를 이동시키는 장비인 리클레이머(reclaimer)로 석탄이나 철광석을 담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분진이 주로 발생한다.

분진이 발생하면서 주변 설비는 물

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자 광양제철소는 분진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했다.

광양제철소는 리클레이머에 물을 뿌리는 장치를 설치해 초기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분진 방지 기술을 도입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장성 북하면 장성호 백암사인근 2803㎡ 환경좋은 1억3천
- 화순 동북면 가수리 2175㎡ 은행 2300 요양주택 절 적합 4800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판만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하면 백양통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농성초교부근 대지 126㎡ 주택 130㎡ 수리해이함 1억5천
- 서동 제일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500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인10전환 4억
- 화순읍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여평도 사용 복층주택 60여평 판백나무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매도·교환

- 양계장 허가난 땅 장흥군 장흥읍 15615㎡ 건물 4810㎡ 도로조건 등 좋음 6억9천
- 남구 임암동 상업지 주차장부지 890㎡ 투자에 양호 34억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 무안 현령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상가건물

- 영광군 심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시무실 농성역인근 2층3층 각각 993㎡ 분할매도가능 평당 230만원
- 전북 고창 대산면 아파트상가 1·2층 252㎡ 은행 1억 매도 5천만원
- 북구 용봉동 아파트단지 입구 땅 1026㎡ 상가 1538㎡ 49억
- 계림동 상업지 대지 106㎡ 복층건물 122㎡ 식당·카페적합 1억6600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물 997㎡ 병원·사육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수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북구 본촌동 생산복지 도로줄을 공장·창고용 1340평 19억5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물 971㎡ 27실 6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현천, 농성초교옆문앞

“급매”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